

## 제22호 (주)일화 구교성 안전관리자



### 안전은 생활이다

대|익의 경제 대란과 쌀쌀한 날씨가 맞물려 사람들 얼굴에도 찬 바람  
그|이 뽕뽕 몰아친다. 그런 이유에서일까? 출근길 아침 우연히 마주  
친 이의 환한 미소속에서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미소가 지어진다.

사람 좋은 얼굴로 얼굴 가득 미소를 담은 구교성 안전관리자를 이달  
의 자랑스런 안전인으로 소개한다.

#### ■ 전문안전인 구교성

경북 문경 출신의 경상도 사나이 구교성 안전관리자는 대학시절 안  
전공학을 전공해 의약품, 드링크제, 안삼제품, 음료수 등을 생산하는  
(주)일화에서 15년동안 안전을 담당하였다.

산업안전, 고압가스, 방화관리, 냉동안전, 위험물 관리 등 1인 5역을  
담당하는 그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작년 안전  
공학 석사과정을 마친 전문안전인이다.

#### ■ 안전은 몸에 배인 습관이 되어야

구교성 안전관리자의 컴퓨터에서는 '안전은 생활이다.' 라는 글귀를  
볼 수 있다. 그것은 안전이 그때그때 순간적인 임기응변이 아닌 몸에  
베여 습관처럼 행해지는 활동이라는 그의 지론이다. 이를 위해 근로자  
스스로 잠재된 위험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잠재위험발굴훈련이나  
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,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현장의 주역인 근  
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.

이외에도, 라인책임자의 역할론을 강조하여 그 라인의 큰 형님격인  
책임자가 안전에 대해 확고한 마인드를 세울 수 있도록 대한산업안전  
협회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, 교육 이수 후 함께 일하  
는 근로자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토록함은 물론이다.

#### ■ 건강하고 활기찬 안전현장 이룩

회사 차원에서든 사내 동아리 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이곳 (주)일화  
에서 구교성 안전관리자는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  
여한다. 마라톤과 축구 동아리의 일원인 그는 하프 마라톤 메달만도 7  
개가 넘고, 축구동아리에서는 총무의 역할을 수행할만큼 매사에 능동적  
이다.

꾸준한 운동으로 향상된 건강과 맑은 정신만큼 활기차고 생기넘치는  
현장을 그로 인해 기대해본다. 

〈성호연 기자〉

